

## 2024 년 9 월 8 일 “(생명의 공동체 5) 두려움 vs 사랑”(요일 4:16b-21)

하나님을 잘못 알 때 생기는 두려움은 참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 [1] 두려움의 근원과 사랑의 속성

사람의 두려움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 3 장에 등장하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3:10)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그의 두려움은 그분의 임재를 떠나니까 자기 벗은 몸 외에는 의지할 곳을 잃은 낭패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담을 부르시고 그가 행한 일에 관해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악 열매를 먹은 결과에 대해서는 훗날 하와의 후손이 처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3:15).

또 벗은 몸으로 인해 얻은 두려움을 배려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마음은 물론 육신의 모습까지 평안하고 자유롭게 해 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창 3 장에서 펼쳐진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겪는 패탄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때 갖는 아담의 원초적 두려움과 그 때 발견한 벗은 내모습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만날 때까지 집요하게 인도하십니다.

### [2]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세상은 사람의 자기 잘못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정당시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업적의 세상 기준에 못 이르면 무시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식은 이와 반대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담길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람의 잘못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지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며, 정죄 없는 사랑이 회복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죄는 없으셨으나 사람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맞으며 두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 26:38)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긴 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고통을 허용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옳다 하시며 부활의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에 침입한 거짓교사들은 자비와 사랑이 아닌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부각하고 교회를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징계하고 형벌을 주는 분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이 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고 자유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이 소개한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여 참 공동체를 이룬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목장 모임의 중요한 의미는 정죄 없는 사랑의 생명의 힘이 흐르고 충전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경험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는 언제나 머리를 들어올리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랑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 가졌던 감정들은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내 안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두려움이 가져오는 결과와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